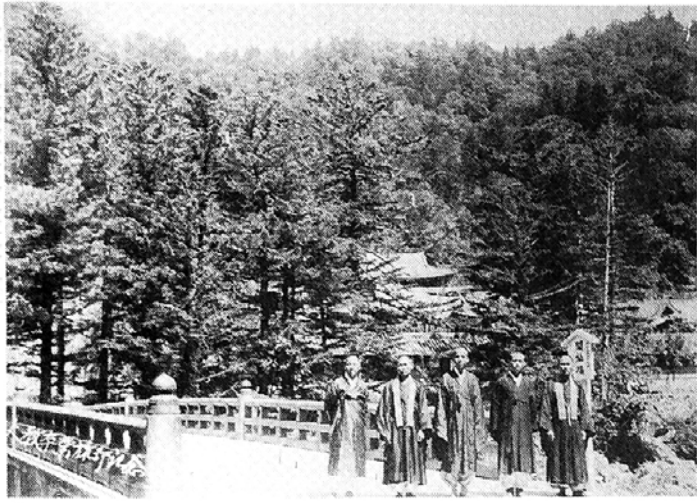


큰 스님 수행한담

채워지는 도리 아시나요



동도사 불교전문강원시절 금강산 장안사로 수학여행기서 도반들과 함께 했다(왼쪽에서 두번째가 화산스님).

철원 도피안사 등을 거쳐 목적지를 향했습니다. 때로는 70~80리를 걸어도 절을 찾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당시 강원도에는 사람과 소가 울타리안에 함께 거주하는 곳도 있었는데 그런데도 잠을 얻어 자곤 했습니다. 한번은 자고 일어나니 신발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워낙 외진 곳이라 오도기도 못하게 됐는데 급한 길에 천조각 등으로 임시조치를 해 길을 떠났습니다. 얼마 가다보니 돌위에 등짐장수가 벗어놓은 구멍난 현 신발이 눈에 띄었

조주스님의 무(無)자 화두를 들고 생사 결단에 들어갔습니다. 경전은 일체중생실유불성(一切衆生悉有佛性)이라 했는데 왜 조주스님은 개한테는 불성이 없다(狗者無佛性)고 했을까? 왜 무(無)란 말인가? 의문을 타파하기 위해 참구를 거듭했습니다. 막내뻘이었던 저는 구참수좌들 못지않은 기백으로 정진에 임했지요. 그러나 마음은 잡히지 아니하고 잠잠방망만 기승을 부렸습니다. 나중에는 감감중매져 생기더군요. 그때가 제일 괴로웠습니다.

“양파껍질 하나씩 벗기면 아무것도 없듯 관념의 허상 벗겨 虛虛空空에 이릅니다”

고마워서 10명 모두 정진하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의증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선지식을 찾아 떠나기로 했습니다. 오대산에 계시는 방한암 큰스님을 찾아뵙기로 했지요. 내내 금강산은 온통 하얗게 덮여 있었습니 다. 고개마루를 지나 다 눈구덩이에 발을 헛디디 아래로 굴렀습니 다. 걸림은 걸림대로 사람이 사람대로 한참 굴러가다 멈추었는데 온몸이 따르르 흥건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바라 정신이 드는데 입에서 배워보지도 않은 생소한 말과 게송이 술술 흘러나왔습니다. 답답하기만 하던 의증도 사라지고 마음은 한없이 상쾌하기만 했습니다. 그때 읊은 게송이

道心堅固 親著話頭 長坐蒲團 戒體清淨 威儀寂靜 小語低聲 雜無入信 常無妄言 道行無倦 莫好戲笑 莫受入誘 莫飲飲食 莫好戲笑 莫受入誘 莫飲飲食 莫好戲笑 莫受入誘 莫飲飲食

해방되던 해 방한암스님이 화산스님에게 좌우명으로 써준 '중국 중봉선사 법어'.

땀이 뚝뚝 떨어지는데 한노인이 씩은 물이 철철 흐르는 송장을 끌고 태산준령을 넘어가다 내려다 "이놈, 짙은 네놈이 이것을 저러"하며 호통을 쳤습니다. 엄감결에 받아 들였는데 어쩌나 겁이 나던지 잠이 깰어요. 꼼꼼히 생각해 보니 생사관문을 넘어가려면 장애도 많지만 결국 자신이 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지에 눈썹이나 의심길이 끊어졌네

“본래 입은 것도 없는데 뭘 또 벗을게 있었습니까?”고 화답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는데 “큰스님, 제가 가야할 길을 알려 주십시오”하자 스님께서는 “자네 갈길 스스로 가시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대산 상원사에서 한암스님을 한 3년간 모셨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니 몸조스님이 병환으로 몸져 누우셨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동도사로 내려가니 노장님이 “경성조사 선지식도 무식한 것보다 유식한 것이 낫다”며 경학공부를 권해요. 큰절에 가서 3년동안 능엄경을 비롯 화엄경에 이르기까지 대교과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걸즈음 태평양전장이 발발했습니다.

포교를 위해서는 유교를 비롯한 다른 학문도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일본 선문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스님대상 교육 기관이었는데 체제가 우수했습니다. 1년과정을 마치고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와 오대산에 들어갔습니다.

오대산에서 해방을 맞았습니다. 나올때 한암 큰스님께서 경소에 늘 가슴에 담고 경책하라고 좌우명을 써 주셨습니다. 중국 중봉선사의 법어입니다.

몇가지 살펴보면 도심(道心)이 견고하면 모름지기 성품을 본다 화두를 의심하되 생식을 씹는 것처럼 하라 비록 사람들에게 신앙을 얻지는 못하더라도 비범하는 사람은 되지말라 도행을 게을리 말고 음식을 배불리 먹지말라

貪·愛·憎 때문에 성불못하고 윤회거듭 생사관문 결국 자신이 넘어야 할 태산

습니다. 마치 너더러 신이라는 뜻이 버섯이 놓여 있었지요. 어쩌나 반갑던지요. 이것만 보더라도 진실되고 절실하게 추구하는 구도자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도와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행단계에 맞는 스승인연도 나타나며 음식의 복 등 필요한 물자가 어떤 형태로든 주어 집니다. 그러나 무엇을 두려워 하겠습니까? 비우면 비울수록 넉넉하게 갖추어지는 도리가 있는데... 사람, 동물 등 유정물과의 만남이 인연이라 이루어지듯 무정물과의 만남도 다 필요한만큼 시절인연 따라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내금강 장안사에 도착하니 잔나무가 병풍처럼 둘러있고 청아한 개울물이 굽이쳐 흐르는데 환희심이 절로 났어요. 하루를 묵고 마하연에 가니 성철스님 탄허스님, 나의 사형이신 성학스님(봉공스님)이 머물고 계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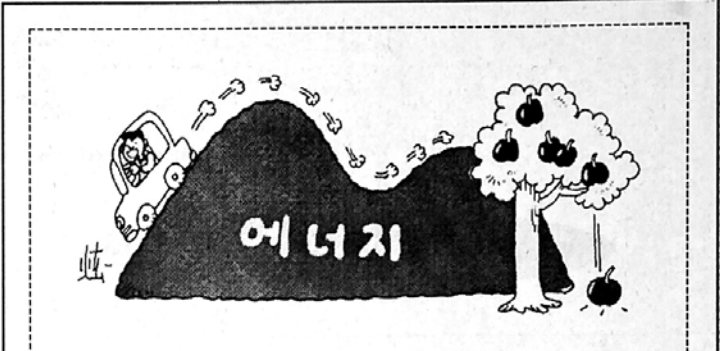
하루는 꿈을 꾸었는데 한노인이 씩은 물이 철철 흐르는 송장을 끌고 태산준령을 넘어가다 내려다 "이놈, 짙은 네놈이 이것을 저러"하며 호통을 쳤습니다. 엄감결에 받아 들였는데 어쩌나 겁이 나던지 잠이 깰어요. 꼼꼼히 생각해 보니 생사관문을 넘어가려면 장애도 많지만 결국 자신이 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강산 4사(四寺)하면 장안사 유점사 표훈사 신계사를 들입니다. 장소를 옮겨 한철 나아갔다는 생각이 들어 유점사 반야암 선방에 갔습니다. 당시는 왜정시대라 식량통제가 심했습니다. 10명의 수좌가 모인 반야암에 5사람이 한철 날 수 있는 식량밖에 없었습니다. 대강사인 김설하스님(김용사)도 늦게 발심해서 참선하러 와 계셨는데 "하루 두끼씩만 먹으면 되지 않느냐? 이 좋은 금강산에 온 김에 다함께 법연이나 짓고가자"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하도

청천의 거리가소리 떨어지는 그곳에 목마는 길게 울고 풍사같은 흙을 추네 무심코 한바탕웃을 밝은 달은 휘영청

계승을 물고나자 모른게 여유로워졌습니 다. 있는 그대로 다 흥민했지요. 죽고 사는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 다. 참 좋았습니다. 골장 한암스님을 찾아갔어요. 후시 그릇된 경계나 의도에 빠진 것은 아닌지 점검을 받아야 했습니다.

계승을 들으신 한암스님은 "산을 넘고 물을 건너며 풀밭을 헤매는 까닭은 경성하기 위한 것인데 자네 성품은 과연 어느 곳에 있는가?"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알고서 고고 하는 행주좌와에 다 있었던 한 물건 갖고 이것이라 할 수는 없습니 다"고 답했지요. 스님께서 또 물으시기를 "내자성을 밝혀 알 것 같으면 바야흐로 생사를 벗는 것인데 슬떨어져 죽는 그순간에 어



전기는 기원전 600년경 탈레스가 호박을 마찰하면 종이 나 털이 붙는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부터 사람들에게 알려 졌다. 길버트는 1600년 《자기(磁氣)와 자기성 물체》라는 저서에서 호박, 금강석, 청옥, 수정, 운모 등이 전기를 일으킨다는 것을 발견했다. 18세기 파라데이는 전깃줄에 자석을 움직이면 전류가 달라짐을 발견하고 전기와 자기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드디어 1865년 캠브리지대학 교수였던 맥스웰은 전기와 전자기 동시에 설명할 수 있는 수학적인 전자기파동방정식을 만들어 전자기학을 정립하였다. 즉, 이제는 전기와 전자기학을 한가지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뉴턴은 빛이 입자(단단한 물체)라고 했다. 그런데 토마스 양은 생생한 실험이라는 유명한 실험을 하여 빛은 파동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

시간·속도등 개념 도입 물체운동 설명 상대성·대통일장 이론 등 꾸준히 발전

는 판자에 서로 가까이 길고 가느다란 두 개의 구멍을 만들어 빛을 쏘이면 반대편에 두 개의 회미한 빛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물결에서와 같이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이 교차하여 나타난다는 것을 보였다. 이것은 물결과 같은 파동에서 일어나는 전형적인 현상이다. 그런데 1900년 막스프랑크는 빛의 입자성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수학적으로 빛의 파동은 입자와 같이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그래서 이것을 광자라 불렀다. 광자는 쪼개질 수 없는 묶음으로 보고 그래서 양자(量子)란 이름이 나오게 되었다. 양자론이 탄생한다. 중심내용은 빛과 같은 에너지가 연속적인 것이 아니라 양(量, quanta)으로 전달된다는 것이다. 빛은 파동이면서 입자이다. 브로글리는 1924년 모든 입자는 파동성을 지닌다고 설명했다. 물체의 운동은 힘에 의해 일어난다. 즉, 물체에 힘을 가하면 움직이기도 하고 더 높은 위치에 가기도 한다. 1687년 뉴턴은 만유인력(萬有引力)을 발견한다. 즉 모든 물체는 서로 인력이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중력(重力)이라고도 한다. 우주의 별들의 운동은 이 중력으로 설명한다. 1900년 막스프랑크가 전자기론을 정립하면서 전자기력(전기의 힘)을 도입한다. 1911년 레더포드가 원자 모형의 제시하였는데 이 모형에서는 각 입자들이 천체에서 적용되는 운동법칙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음을 알게 된다. 천체운동에는 거리 제곱의 역수인 1/r^2의 인력이 작용하는데 원자핵에는 이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전자기력으로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원자핵에는 핵력이라는 힘이 있다고 하는 두 가지로 나누어 強力, 弱力이라 하였다. 그래서 1960년까지 자연에는 4가지 힘 즉, 중력, 전자기력, 강력, 약력이 존재하게 되었다. 그러나 와인버그와 살람은 4가지 힘의 통합이론을 발전시켜 노벨상을 수상한다. 이것을 대통일장이론이라 한다. 이런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는 오래 동안 연구되어 왔는데, 17세기가 되면 길이, 시간, 힘, 질량, 속도, 가속도등

불교전통의식교육대학 신(편)입생 모집요강

1989년 설립된 불교 전통의식 교육대학에서는 범음 범패, 요잡 및 작법등 불교 전통의식을 보다 높 이 계승발전 시키고져하오니 뜻 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입학을 바랍니다. 불교 전통의식 교육대학 학장 습掌

- 1. 모집학과
학 과 교육 내용 모집인원 비고
초급 교육과정 예경의식 및 기초교리 20명 6개월
전통 교육과정 상주권공 및 불교의식론 20명 1년
연구 과정 요잡, 작법, 안차비 등 10명 1년
2. 응시자격 : (다음 사항중 한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1)수계 득도한 자
2)오계를 수계한 자
3)각 종단 간부의 추천을 받은 자
3. 전형방법 : 서류전형(면접)
4. 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 5. 제출서류 : 1)입학원서(소정양식) 1통
2)수계증명서 사본
3)추천서
4)반명함판 사진 4매
※ 교육시간 : 주 5회(월~금)
접수일자 : 1997년 2월17일~3월15일
약 도
원서 교부 및 접수처
불교 전통의식 교육대학 교학처
130-012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2동 604번지
전화 (02)967-7093

불교전통의식교육대학